

출 장 보 고 서

1. 출장건명 :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 국제심포지엄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 국제심포지엄 참가

3. 출장개요

출 장 자			출장지역	출장기간
소 속	직 급	성 명		
부원장실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부원장 전문연구원	김정호 강혜정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2007. 10. 19 ~ 10. 21 (3일간)

4. 출장결과

4.1.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개요

○ 학회 개요

지역농림경제학회는 1950년에 창립되어 금년으로 제57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회원 수는 총 300명 수준이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150명 정도가 참가하였음. 특히 개별보고에는 7개 회의장으로 나누어 총 6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학술대회는 매년 지역(현 단위)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도는 고베대학에서 개최할 계획임.

○ 행사 개요

- 국제 심포지움: 2007. 10. 19(금) 13:00~18:00, 가나자와시 문화홀
 - * 주제: 직접지불정책은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늘리고 생산 중립적이며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 학술논문 개별보고회: 2007. 10. 20(토) 09:30~16:00, 이시카와현립대학
 - * 총 7개 회의장에서 68편의 논문이 발표됨.
- 기념 심포지움: 2007. 10. 21(일) 09:30~16:00, 이시카와현립대학
 - * 주제: 지역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 지역 심포지움: 2007. 10. 22(월) 09:30~16:00, 이시카와현립대학
 - * 주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논농업 구조개혁을 진전시키는가?

4.2. 국제심포지엄 참가(발표 및 토론)

□ 각국의 발표 주제

1. Hiroshi Tsujii(Ishikawa Prefectural Univeristy), "Can Japan's Large-Farm-Selective Direct Income Payment Policy and Liberalization Policy Foster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ies such as Food Security and Landscape, and Create Efficient Farms?"
2. Hye-Jung Kang, Jeong-Ho Kim(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Direct Income Payments on Productive Efficiency of Korean Rice Farms and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Structural Reform."
3. David Alber(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Regional Economics and Demography, Penn State University), "Do Price and Income Support Policies Promote Multifunctionality in Japan."
4. James R. Simpson(Impact Center, Washington State University), "Impacts of Direct Income Payment Policy to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in Japan."
5. Thia Hemmesty and Cathal O Donoghue(Rural Economy Research Center), "The Economic Impact of a shift to Decoupled Payments: The Evidence from Ireland"
6. Nico Heerink(Wageningen Univ.) and Shi Xiaoping(Nanjing Agri. Univ.), "The Impacts of the Direct Farm Income Payment Policy t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 강혜정 · 김정호의 발표 및 토론 내용

○ 발표 내용 요약

우리나라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조정 목표와 함께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직접지불제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직접지불제가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나 수급균형과 같은 중요한 농정목표를 저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직불제와 농업구조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특히,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확대는 이들의 퇴출을 억제함으로써 구조조정에 역행하며, 쌀에 집중된 소득보전정책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지에 연계된 직접지불제는 지가와 임대차료를 상승시켜 농지유동화를 억제하고 젊은 농가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보전 직불제와 농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쟁들 중 본 연구는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효율성과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보전 직불제가 과연 한계농가의 탈농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다.

소득보전 직불제와 농업구조조정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농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기보다는 주로 현장사례에 의존하고 있어 좀 더 엄밀한 이론과 실증분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가경제자료를 이용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쌀 생산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로 개별 쌀 농가의 생산자료와 쌀소득직접지불액을 포함한 공적보조금액을 사용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쌀 생산농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확률경계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여 개별 농가의 생산효율성지표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효율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변수를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농가소득에서 쌀소득보전직불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생산효율성은 낮았고, 비효율성은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쌀소득보전직불액에 의존도가 높은 농가들은 비효율적이며, 영농규모가 클수록 이런 비효율성은 낮아져 소득보전직불제는 대규모 농가를 생산경계로 접근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직불액이 많을수록 생산효율성은 높아졌으며, 이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이 경지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직불제 의존도가 높은 한계농가의 이탈은 전체적인 한국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므로, 한국농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맞게 직접지불제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 내용 요약

- 난정대학 교수가 이용한 CGE모형의 한계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아일랜드의 환경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구조조정간의 관계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다른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발표자들간의 토론이 있었음.
- 한국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방청석의 질의에 대하여, UR 협상 이후 농

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정책적으로는 2001년에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음.

<일본 지역농림경제학회 2007년 국제심포지움 사진>

